

〈제13회 화재 및 자연재해 예방 체험수기 현상공모 **우수상** 수상작〉

# 우리집 화재 예방은 우리 아이들로부터!

글 김기섭

**우리집** 화재 예방은 나와 아내보다도 아이들이 더 앞장선다. 며칠 전 저녁, 모처럼 청국장을 끓여 주방은 물론 방에까지 냄새가 배어 향초를 켜더니, 초등학교 2학년 인 큰아들 녀석이 어느새 간이 소화기를 책상 위에 가져다 놓았다.

“이건 왜 여기다 놓니?”

“아빠. 촛불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자나 깨나 불조심!”

이런 투철한 화재 안전 생활에 작은 아들 녀석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엄마! 가스 불 잠갔어?”

여섯 살짜리 아들 녀석은 식사 준비를 하는 제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며 가스 불 단속을 하곤 한다. 성가실 만큼 아들 녀석이 가스 불 안전을 외쳐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아파트에 살다가 재작년. 지금의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아파트와는 달리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다보니 조금은 시끄럽고 성가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웃들과 더 가깝게 부딪힐 수 있는 살가움이 느껴져서 좋았다.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베란다를 통해 코끝에 와 닿으면 어느새 현관문 앞에는 아랫집에서 만든 맛난 부침개가 도착해 있을 만큼 이웃들과 가깝게 지냈다. 특히, 아랫집은 우리집처럼 아들만 돌이고 비슷한 또래라 금방 가까워졌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우리 아이들이 아직 친구가 없어요. 애들 데리고 놀러 와요.”

아내가 그 말을 아랫집 아주머니에게 한 후 며칠 뒤 일요일. 아랫집 가족이 우리집에 놀러 왔다. 그런데 그 집 큰 아이를 처음 보고 나는 흠칫 놀랐다. 얼굴이며 몸 곳곳에 화상흉터가 남아 있었다. 우리 아이들도 놀랐는지 자꾸 뒷걸음질 치며 뒤로만 숨었다. 아랫집 아주머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놀란 표정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아주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해주었다.

“놀랐니? 형아도 너네처럼 아주 멋진 얼굴이었는데 장난치다 불이 나는 사고를 당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불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아줌마 말 알아듣겠니?”

아랫집 아주머니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자 조금 전까지도 놀란 표정이던 아이들은 어느새 경계의 표정을 풀고 아이들끼리 몇 마디 말을 나누더니 어느새 금방 가까워져서는 자기들 방으로 가서 놀자며 아랫집 형의 손을 잡아끌었다.

“놀랐죠? 우리집 큰 아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많이 서운해서 운적도 많지만... 제가 서운해도 우리 아이 마음만큼이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당당하게 아이와 함께 이겨 내기로 했어요.”

아랫집 부부는 우리가 이사 오기 3년 전에 이사 왔다고 한다. 그때 만해도 아랫집 아주머니도 직장 다니며 남편과 더불어 맛벌이를 하는 처지라 아무래도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노는 시간이 많았는데, 한참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동네 공터에서 빈 부탄 가스통을 가져다 돌맹이로 맞추며 놀았다고 한다. 돌맹이가 부탄 가스통에 맞을 때마다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 재밌어서 계속 돌맹이를 던지다가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만 것이다.

함께 놀던 여러 아이들이 다쳤는데 그 중에서도 아랫집 큰아들이 가장 심하게 다쳤다고 한다. 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이는 아이 엄마를 따라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를 함께 들은 나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집과 아랫집은 친동기만큼이나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아랫집 아주머니는 누구네 집 아이 할 것 없이 가스를 포함한 생활 속 안전 교육을 시켰고, 우리집 아이들도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저절로 깨닫게 되었으며, 가스 안전뿐 아니라 자연스레 전기 사용 등 생활 속 안전의식을 많이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에 아랫집 큰아들은 수술을 받았다. 처음 봤을 때 보다는 화상 흉터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몇 번 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우리집 아이들은 그렇게 이웃집 형과 친하게 지내며 많이



달라졌다. 개구쟁이들이라 전에는 무슨 사고라도 낼까 조마조마했던 적도 많았는데 요즘은 나보다도 더 화재 예방에 대하여 주의하고 조심한다. 전기코드를 다섯, 여섯 개씩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멀티탭에도 코드를 세 개 이상 연결하면 과열되어 불이 난다며, 컴퓨터를 할 때는 게임기는 사용하지 않을 만큼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 작은 아이는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잘못 만지면 감전이 된다며 욕실에 갈 때는 꼭 수건부터 챙겨 젖은 손을 물기 하나 없이 닦은 다음에야 화장실 전기 스위치를 켤 만큼 우리집 아이들의 안전의식은 각별하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미처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더라도 하면 요란스럽게 난리를 치고 빈 부탄가스통이라도 나오면 팔을 끌고 나와 못과 망치를 주며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내라고 하고는 자기네들은 멀찍이 물러나서 지켜본다.

“의리 없는 놈들! 가스통 터지면 아빠만 죽으라고 너희들만 멀리 도망가서 지켜보냐!”

“몇 년 만 더 있다 제가 더 크면 그땐 제가 똥을꺼요! 아빠 미안!”

생활 속 화재 예방. 작은 부주의에서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 사소한 안전규칙조차 잊고 살기 쉬운데 아이들의 유별스런 안전의식 덕분에 나 역시 더욱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집 아이들이라고 유별나서 화재 예방에 대하여 투철한 것은 아닐 것이다.아이들이 화재 예방 및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게 된 것은 가스폭발 화재사고로 이웃집 형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리라.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육 현장에서 보다 실효적인 안전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화재 예방 교육은 백 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시청각 교재와 안전체험 견학 등을 통하여 눈과 몸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적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생활 속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화재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여 화재 안전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따른 사례별 안전생활방법 등을 저 연령의 어린 학생들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교과목 과정에 포함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를 아이들에게 더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화재 예방 교육도 중요하다. 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화재사고로 인한 가정과 사회의 불행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이다.

화재 예방에 대하여 빠르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화재사고로부터 비극을 막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최고의 비법이자, 우리 부모들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일 것이다. ☹



# 화재 시 대피요령

## 화재예방시리즈 4

소화기 등으로 불이 꺼지지 않으면 재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린이나 노인, 환자, 임산부 등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먼저 대피하도록 도와줍니다.



1 화재경보가 울리면 지체하지 말고 유도등의 표시방향을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세요.



2 엘리베이터, 무빙워크가 아닌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출 경우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단,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이용 가능)



3 피난 시 방화문을 꼭 닫으세요. 방화문은 화재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켜 안전한 피난을 도와줍니다.



4 연기가 많이 발생한 곳에서는 젖은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하세요.